

도약의 달

믿음 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말대로 해봐  
 다 말해줬잖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  
 내 말대로  
 안 돼여..



일직선의 길도, 구부러진 길도  
 예수님 말씀이면... 갑니다

#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July 10,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3:11-16 <b>“내게 돌리라,”</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597장 -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통일찬송가 378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구은강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2:13-16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7월 “도약의 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날개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1.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2. **여덟번째 해**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3. **하반기 사역**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여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4. **특별새벽기도** 교회의 설립 7주년을 감화하는 2주간의 새벽기도를 마쳤습니다.
5. **믿음 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한 주간 삽시다.
6. **중고등부 여름사역**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연합 여름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여름을 유용하게 보내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7.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8.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7월의 사역 -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10-16)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7-23) 선교주간(24-30) 선교주일(31)

♥ 7월 평영축하 ♥ 이광호(14) 오정은(14) 구은강(28)

### 기도제목

1. COVID-19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위해
2.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은 교우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3. 이사하는 가정을 위해
4.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각 자녀의 유익한 방학을 위해
5. Youth 사역(Joint ministry)의 성장과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 예배 섬김이

	<b>7/3</b>	<b>7/10</b>	<b>7/17</b>	<b>7/24</b>
<b>주일예배기도</b>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최선운집사
	<b>7/3</b>	<b>7/10</b>	<b>7/17</b>	<b>7/24</b>
<b>주일헌금위원</b>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유동숙집사/김훈태집사		
	<b>7월</b>			
<b>주일안내위원</b>	최내권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네가 낮고자 하느냐?” / 요한복음 5:1-9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공황의 집, 베데스다에 모였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곳조차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터같았다. 천사가 내려와 연못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때만 불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등만 고침을 받는 이 경쟁에서 38년간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적을 경험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오려는 열망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도 주셨다. 그는 병상을 정리하여, 들었고, 걸어갔다.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쟁취하는 면류관이 아니었다. 세상의 경쟁을 초월한 참된 승리자가 되었다. 주 예수의 능력과 은혜면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경쟁에 사로잡힌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은혜만으로 참된 1등이 되는 축복을 누리자.

“내게 돌리라.” / 출애굽기 13:11-16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인도하신 하나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언

레위지파의 구별된 역할

하나님의 소유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감사와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소유와 축복이 나눔과 섬김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주인되신 하나님께 인정해야 한다.

### “내게 돌리라.” / 출애굽기 13:11-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 첫 새끼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신다.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을 때, 하나님은 구별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장자는 가문과 가업을 잇는 핵심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장자가 태어나면 첫 기쁨과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다. 가축의 첫 새끼 중 수컷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에게 주었다. 그들은 가축의 첫 새끼를 기르면서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다. 교통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던 나귀의 경우, 희소가치가 적은 양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또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조사되었고, 레위지파의 경우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가 계수 되었다. 레위의 남자보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더 많을 경우, 1인당 5세겔로 계산한 속전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지불했다.

이에 관해 '유월의 은혜는 단 한 번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장자가 가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게 된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희생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심, 즉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가 수고한 결과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가? 하나님은 잊고, 다 나의 소유로 생각할 때가 있다.

나의 모든 소유, 내가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자.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기억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세며 감사하자.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삼과 신앙

###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이끄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어도 이후 거칠고 험난한 광야생활에 지쳐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다.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지. 그때 비록 노예였지만 집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지”라는 말들을 뱉곤 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예수 믿기 전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고달픈 삶을 살게 하시나?’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믿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네’라며 지나온 애굽 땅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린 것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은 분명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잔재를 벗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사람이 되어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굳이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사느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애굽에서 산다 한들 마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준다면 그걸 받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죽음으로 모든게 끝난다면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들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이고 죽음 이후 진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 히 9:27**

어쩌면 우리 영혼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라도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 악한 영들의 정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움을 입었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라고 담대히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 거친 광야 길을 힘차게 걷길 바라고 또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거친 여정을 이끄는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그 길에 동행하셨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 출 33:11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친구와 교제할 때만큼 좋은 때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친구와 만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면 속이 뽕 뚫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그렇게 안 해주실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친구가 되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길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와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도 나누고, 불안과 불안정한 생각도 나누고, 아둔한 지식도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새사람으로 변화 받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골 3:9,10 새번역

수년 전 어느 날, 나는 마침내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은혜를 누렸다. 그 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연합이야말로 세상 어떤 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임을 알게 되었다.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순간, 그분은 그 넓고 깊고 따뜻한 인격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내 평생 절대로 풀지 못할 거라 여겼던 문제도 그 순간 스르르 풀리게 하셨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마지막 날의 공포와 두려움도 걷어주셨다. 언제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진정한 삶의 시작임을 그때 이후 꿈 속에서도 믿게 하셨다.

그 뒤로 내 인생길에는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절친에게 전화하듯 하나님께 나아가 미주알고주알 내 마음과 생각을 풀어놓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참된 교제이자 사귄다. 안식의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고백이 왜 나왔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배당이나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혼자 운전하거나 산책할 때도 내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으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곤 한다. 그러면 나를 엄습하던 어두운 그림자가 어느새 걷히고 하나님의 온화한 빛이 나를 에워싸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야말로 어둠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기도요 영적인 기도임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다.

한근영,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영혼을 141

“인격이 나를 포니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기도요 영적인 기도임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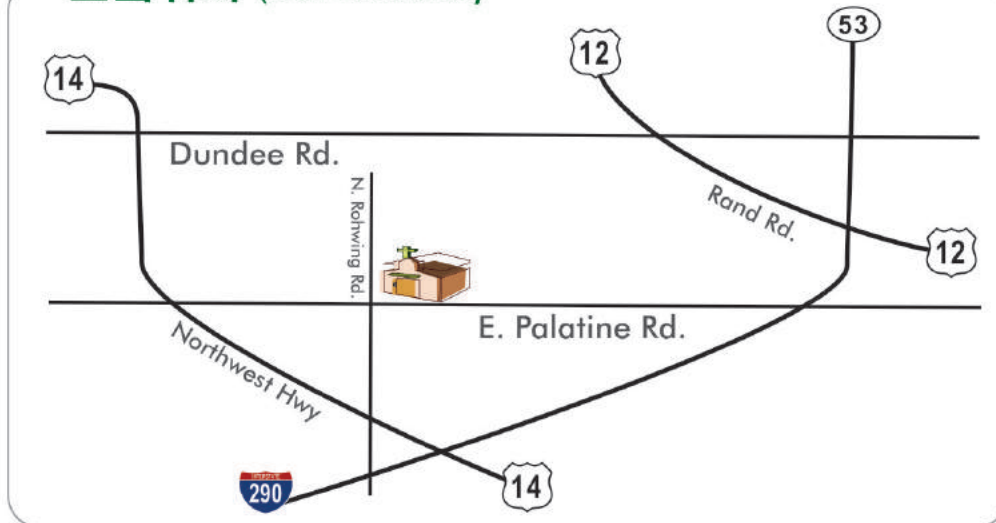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